

냉전 이후 군비경쟁의 변화:

동아시아 지역 군비경쟁을 중심으로

강지연*

목 차	
I. 서론	IV.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와 新군비 경쟁
II. 군비경쟁에 관한 기존연구	V. 결론
III. 냉전기 군비경쟁: 미국과 소련의 舊 군비경쟁	

| 논문요약 |

본 논문은 냉전 이후 군비경쟁이 어떠한 형태로 변화해 왔는지를 알아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냉전기 군비경쟁은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를 통한 군사력 경쟁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냉전 이후 군비경쟁은 냉전기보다 더욱 복잡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기존 양극화 중심의 경쟁이 다극화되면서 지리적 중요성을 중심으로 한 무기개발 경쟁에서 군사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기존 미국과 소련 중심의 경쟁이 냉전 이후 동아시아 지역과 같은 지역 중심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즉, 기존의 미국과 소련의 양극 중심 세력경쟁에서 지역강대국 중심인 다극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는 양상과도 관련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군비경쟁이 핵무기 중심의 무기개발에 무게를 두었다면, 최근에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과 같은 무기 경쟁뿐만 아니라 말라바르 훈련과 같은 우호국 중심의 합동 군사 훈련을 포함하는 복합적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형태의 군비경쟁이 동맹국 또는 파트너국의 군사 무기개발의 공백을 메워 줌으로써 지역 내 불안정한 평화를 지속해서 유지시켜 줄 것이라고 본다.

▪ 주제어: 군사경쟁, 군비경쟁, 극초음속 미사일, 합동군사훈련, 동아시아

*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연구교수

I. 서론

국제사회는 다양한 무력충돌이 대두되는 가운데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군비경쟁과 군사협력 또한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충돌로 드러난 아이언돔의 대응 불가 상황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한반도에 안보 불안을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가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신무기 개발 경쟁은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상황에 위협을 더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정찰위성 시험 성공, 대만해협에서의 중국과 대만 간 긴장 상황,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갈등은 지역 내 무기개발 경쟁을 심화시키고, 전쟁 시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방국과의 군사협력 유지에 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군비경쟁은 최근 무기개발 및 합동 군사 훈련 등 복합적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동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나는 군비경쟁을 새로운 형태의 군비경쟁으로 보고, 냉전 시기의 핵무기 개발 중심 경쟁과는 달리, 복합적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냉전 시기 군비경쟁은 미국과 소련을 축으로 하는 핵무기 개발 중심의 경쟁이었다. 미국의 수소폭탄 개발 이후, 1950년 중반부터 나타난 소련의 핵전력 증강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공세적 핵전략에 타당성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의 경쟁적 핵 증강에 따른 일방적 선제 핵 공격, 그리고 이에 따른 대응 공격은 쌍방 모두에게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쉽게 예측할 수 있었다. 즉,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의 핵을 기반으로 하는 전면전은 일방의 승리를 기대할 수 없는, 모두가 패배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지배하던 시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냉전 시기 군비경쟁은 핵을 기반으로 하는 전면전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운용되었다(Harkabi 1966, 2).

현재 동아시아 국가들의 국방비 증가, 현대화된 무기개발, 군사협력 등은 과거 소련과 미국 사이의 핵전략 중심의 군비경쟁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특히, 과거 냉전 시기의 핵무기와는 달리 게임체인저로 인식되는 다양한 무기들뿐만 아니라 합동 군사 훈련, 주요 강대국 중심의 안보협력 등으로 다양화 되는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은 중국과 미국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임과 동시에 북한의 무력 도발에 따른 안보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따른 지역 내 미국의 현상 유지 정책과 미국의 지역 내 개입에 대응하려는 중국의 반접근 및 반지역 능력(A2/AD) 확보는 지역 내 중국과 미국의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 또한 군비경쟁에 참여하게 만들었다.

세력균형론에 따르면 힘의 균형은 국가 간 힘의 분포에 따라 형성된다. 즉, 균형은 자신보다 강한 상대방에 대해 형성된다는 것이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는 상위 5개국 중 4개 국가(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가 아시아 지역 안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Tian et. al. 2024, 2). 특히, 중국과 미국의 군사비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이 두 국가는 서로에게 위협적인 강대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국가가 각각 이루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 내 동맹, 파트너 국가들과의 무기개발 및 군사협력은 지역 내 위협 균형이 이뤄지도록 도와주고 있다.

본 연구는 다양화되고 복잡화되는 현대전과 지역 내 군사 위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과거의 군비경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무기개발, 군사협력 등을 통해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 개발 경쟁과 비교하여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더불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군비경쟁이 지역 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군비경쟁에 관한 기존연구

냉전 이후 군비경쟁과 관련된 연구는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군비경쟁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한반도 내에서의 한국과 북한의 군비경쟁과 평화 정착 방안, 동북아 내 군비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개혁 방안 제시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장철운 외(2021)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한반도 군비경쟁을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

히 재래식 군사력에서 전술핵으로의 변화과정, 남북군사력 평가를 통해 한반도 내에서 북한의 양적 우위와 남한의 질적 우위라는 비대칭적 군사균형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불균형과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송세관(2021)은 동북아에서의 군비경쟁은 중국, 미국, 일본, 남·북한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의 경제·외교·정치 등 다양한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갈등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구축 및 유지에 한계를 가져오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한국 역시 동북아의 군비경쟁 속에서 국방개혁을 통해 첨단화된 기술집약형 군대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Xi(2021)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핵을 둘러싼 전략적 군비경쟁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Xi는 본인의 연구에서 미국과 러시아 간의 경쟁 심화와 기술혁신이 인도, 파키스탄, 북한 등 다른 핵무장 국가들의 핵 현대화를 촉진하고, 지역 내 전략적 군비경쟁을 부추긴다고 보았다.

동북아에서의 군비경쟁은 임재형·이성우의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임재형·이성우(2019)는 동북아 지역은 협력과 갈등의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는 지역으로 다양한 역학 구도(양극 체제와 다극 체제)가 혼재되어 있는 복잡한 지역이라고 평가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지역보다도 동북아 지역에서 첨단 무기개발 경쟁이 극대화되고 있고, 이러한 경쟁이 지역 내 패권경쟁의 대결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냉전 이후의 군비경쟁이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즉, 기존의 군비경쟁이 단순히 무기의 현대화나 전술핵의 발전, 혹은 한국전과 베트남전 같은 대리전(Proxy War)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현대의 군비경쟁은 무기 경쟁을 넘어 ‘군사경쟁(Military Competition)’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본다. 이는 군사경쟁이 군비경쟁보다 더 복잡하고 다차원적이라는 것이다.

물론 군비경쟁(arms races)이 아닌 군사경쟁(military competition)에 관한 연구가 전무한 것은 아니다. Cardenas(2020)는 남중국해에서의 미국과 중국 간 군사경쟁이 남중국해 주변국들의 지역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하였다. Cardenas는 본 연구를 통해 미국이 중국과의 군사적 갈등 사이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ASEAN 국가들의 참여를 제안했다.

그러나 Cardenas는 ‘군사경쟁’을 기존의 연구에서 말하는 ‘군비경쟁’과 구별하지 않고, 군의 현대화를 통한 군사력 증강을 ‘군사경쟁’으로 보고 있다.

강정일(2022)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를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의 군사경쟁 양상을 분석한다. 강정일은 군사경쟁을 군사 무기, 군사 전술과 같은 군사 전반의 물리적 군사력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요인으로 확장하여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다. Liff와 Ikenberry(2014)도 자신들의 연구를 통해 군사경쟁을 다루지만, 군사경쟁을 이전의 군비경쟁 연구들과 동일하게 군사력 증강과 군비 확대의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다. 특히, 군사경쟁을 무기체계의 현대화, 한 국가의 군사적 움직임에 따른 다른 국가의 대응을 군사경쟁으로 정의한다. 뿐만 아니라 Liff와 Ikenberry는 이러한 군사경쟁의 악순환이 자원의 낭비, 경제적 비용 증가, 지역의 불안정성을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냉전 이후 전쟁의 형태, 경쟁의 양상, 협력의 방식은 변화했음에도 현대시대의 ‘군비경쟁’은 여전히 전략적 측면이나 전략무기 개발의 경쟁으로 국한되어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신성호 2017; 최우선 2019).

Mastro(2021)는 냉전 시기의 미국과 소련 간 경쟁보다 현재 동아시아에서의 경쟁이 훨씬 복잡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군비경쟁’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리적 특성, 중국의 군사력과 외교적·경제적 영향력을 제외하고 군사 무기의 증강만으로 과거의 ‘군비경쟁’과 동일하게 정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대의 ‘군비경쟁’을 동맹 및 우호국 확보, 지역 내 파트너십 구축, 방위비 분담 등이 포함되는 다양하고 복잡한 측면의 내용으로 확장된 ‘군사경쟁(military competition)’으로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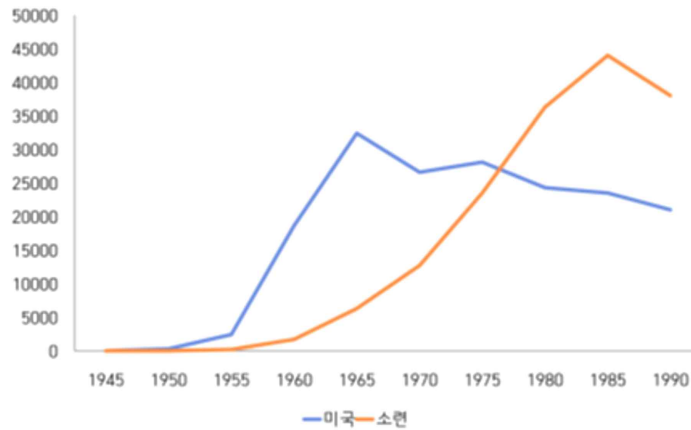
본 연구는 냉전 이후의 군비경쟁을 ‘군사경쟁’으로 확장해 정의하고자 한다. 이는 현대전과 지역 내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새로운 무기개발을 넘어 합동 군사 훈련, 동맹국 간 방위비 분담 등의 문제들이 복합적 요인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를 통해 냉전 이후 군비경쟁의 형태적·내용적 변화가 국제 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보인다.

Ⅲ. 냉전기 군비경쟁: 미국과 소련의 舊 군비경쟁

냉전기 군비경쟁은 미국의 핵탄두 사용을 시작으로 촉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탄두를 투하한 이후 소련이 핵 개발에 성공하기 전까지 유일한 핵보유국이었다. 1949년 8월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한 이후에도 1950년대 초까지 미국과 소련의 핵탄두 보유 수는 압도적인 격차를 보였다(Gaddis 2005, 58).

1960년대까지도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개발에서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였으나, 1960년대 중반 이후에는 미국과 소련의 핵전력 규모가 비슷한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림 1> 1945-1990년 미국과 소련의 핵전력(저장량) 비교



▪ 장철운 외(2021)

미국에 비해 핵 개발의 후발주자였던 소련은 1953년 8월 첫 수소폭탄 실험 성공을 계기로,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핵미사일 전력을 증강시켰다(김보미 2019, 290). 소련은 1954년 5월 20일, 사거리 5,000마일(약 8,000km)의 액체 연료 ICBM SS-6 Sapwood 개발 계획을 승인하고, 1957년 5월 15일부터 시험 비행을 시작했다(정규수 2012, 127-128). 1957년

8월 21일, SS-6 Sapwood 시험 발사에 성공한 소련은 같은 해 10월 4일 SS-6 Sapwood을 이용해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를 궤도에 진입시켰다(고봉준 2007, 284).

<표 1> 냉전기 미국과 소련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배치년도	미국	소련
1959	ATLAS D(1964)	
1960		SS-6S spwood(1968)
1961	ATLAS E(1965)	
1962	ATLAS F(1965) TITAN I(1965) MINUTEMA I(1975)	
1963	TITAN II(1987)	SS-8 Sasin(1978)
1965		SS-11 Sego(1991)
1966	MINUTEMAN II(1991)	SS-9 Scarp(1980)
1969		SS-13 Savage(1991)
1970	MINUTEMAN III(현재)	
1975		SS-17 Spanker(1991) SS-18 Stan(현재) SS-19 Stiletto(현재)
1985		SS-25 Sickle(현재)
1986	MIX(2005)	
1987		SS-24 Scalpel(2001)

▪ 고봉준(2007)

미국과 소련의 경쟁적인 핵 개발은 보복공격력 보유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공동의 인식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1972년 미국과 소련은 전략무기감축협정(Strategic Arms Limitation Treaty: SALT)과 탄도탄요격미사일제한조약(Anti-Ballistic Missile Treaty: ABM)을 각각 체결했다. 그러나 SALT 조약 체결 이후, 미국과 소련은 조약에서 규정하지 않은 다탄두미사일(Multiple independently targetable re-entry vehicle: MIRV) 개발에 주력

하면서 또 다른 핵 군비 통제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9년 SALT II 조약이 체결되었으며(한창식 2010), 이후에도 미국과 소련(탈냉전 이후 러시아) 간에는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등 다양한 군비 통제 협정들이 이뤄진다.

<표 2> 미국-러시아 주요 핵무기 협정 내용

	조약명	협정년도	내용	비고
1	SALT (Strategic Arms Limitation Treaty)	1972	· 핵무기 배치 동결 (핵무기 운반체 제한)	감축이 아닌 동결이 주목적
2	AMBT (Anti-Ballistic Missile Treaty)	1972	· 탄도탄 요격 유도탄제약	2002년 미국 일방 파기
3	SALT II	1979	· 핵무기 감축	
4	START (Strategic Arms Limitation Treaties)	1991	· SALT의 문제점 개선 · 핵무기 감축 · 상호간 핵무기 정보교환 및 상호검증	MIRV 숫자 제한
5	START II	1993	· MIRV 완전 폐기 및 해체 비용에 대한 미국 지원	미국의 ABMT 일방파기로 무효화
6	New START	2010	· 운송수단 및 핵탄두 감소	러시아가 New START에 제한을 받지 않는 신형무기 포세이돈 (수중드론) 개발

▪ 고훈준(2007)

이처럼 1960년대 군비경쟁은 주로 핵무기 개발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군비 경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냉전 기간 동안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등의 대리전이 발생했으며, 이를 통한 무기 지원과 같은 군비경쟁 또한 심화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냉전 기간 동안 가장 큰 주요 이슈는 핵무기의 개발과 보유였다.

냉전 기간 동안 총 7개국(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이스라엘)

이 공식 및 비공식적으로 핵을 보유하기 시작했다. 또한, 쿠바 미사일 사태를 통해 핵전쟁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으며, 이를 계기로 군비 통제를 위한 부분핵실험금지조약(PTBT)체결, 데탕트(Detente) 정책의 시작, 핵확산 방지조약(NPT) 체결 등이 이뤄졌다. 이러한 점에서 핵무기는 냉전 종식의 가장 큰 전환점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동아시아에서 나타나는 군비경쟁은 냉전 시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냉전 시기처럼 전쟁 발생 시 전멸을 초래할 수 있는 무기개발에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게임체인저로서 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최첨단 무기 개발과 경쟁, 군사협력 등 과거보다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다.

IV.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와 新군비경쟁

1.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상황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가는 주변국들에게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성공은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안보에 더 많은 위협 요소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다. 중국은 경제성장에 비해 국방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아래 <그림 2>를 보면, 2007년을 기점으로 중국의 GDP 성장은 둔화되는 반면, 국방비 비율은 매년 약 1.72%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순수 국방비 지출액 기준으로 볼 때 2023년 기준 미국이 가장 많은 국방비(약 9,16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07년부터 2020년까지 동일 기간 미국과 중국의 국방비 증가율을 비교하면, 중국은 약 4배 증가한 반면, 미국은 약 1.3배 증가에 그쳤다.¹⁾

1) SIPRI (2023b), "S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https://www.sipri.org/databases/milex>. (2023년 11월 18일 검색)

<그림 2> 중국과 미국의 GDP 대비 군사비 증가율(2000-2022년)²⁾



중국



미국

중국의 국방비 증가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주변국들에게도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State Counci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의 2019년 보고서를 통해 중국인 민해방군(People’s Liberation Army: PLA)을 지속적으로 감축하면서, 군의 규모를 줄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중국의 군 병력은 2006년 약 360만 명에서 2019년 약 250만 명으로 약 100만 명 이상이 감소했다.³⁾ 그러나 주목

2) 다음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World Bank Data (2023), “Military expenditure (% of GDP)”, <https://databank.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KD.ZG/1ff4a498/Popular-Indicators#>. (2023년 11월 18일 검색); SIPRI (2023b),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https://www.sipri.org/databases/milex>. (2023년 11월 18일 검색)

할 점은, 병력감축과는 반대로 군사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5년 이후 전 세계 무기 생산 및 군수회사 상위 10위권에 중국 기업이 매년 평균 3개씩 포함되고 있다는 점은 이를 잘 보여준다.⁴⁾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두 국가(미국, 중국)의 군사비 증가 이외에도, 지역 내 군사경쟁의 다양한 형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 활동, 일본의 방위비 증가와 군사력 강화, 한국의 국방 예산 확대 및 무기개발 투자 계획 등의 다양한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표 3> 동아시아 지역 내 발생하고 있는 군사행동 경향(2024년 기준)

종류	국가	내용
무기개발 및 시험 발사	북한	·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1월 14일) · 45톤 초대형 재래식 탄두 장착 미사일 시험 발사(9월 18일)
	일본	· 6세대 전투기 공동(일본, 영국, 이탈리아) 개발
	한국	· KF-21 '보라매' 전투기 무장 시험(3월 28일)
합동군사 훈련	한국, 미국	· 아이언 메이스(Iron Mace 24) 훈련(7월 30일-8월 1일)
	한국, 미국, 일본	· 정례연합훈련(4월 11일-12일)
	중국, 러시아	· 해상연합 2024(7월 15일-17일) · 북부연합 2024 합동훈련(9월 10일-27일)
	인도네시아, 러시아	· 첫 합동군사훈련(11월 4일-8일)
국방 및 안보 회의	한국, 말레이시아	· 정상회담(11월 25일)
기타	일본	· 북한 스파이 위성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감시 위성 발사(1월 12일)
	일본, 필리핀	· 군사협력-일본-필리핀 '상호접근협정' 체결(7월 8일)

-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회의, 훈련 및 4장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내용은 제외함
- 『조선일보』(2024/01/16); 『연합뉴스』(2024/09/19); 『조선일보』(2024/03/21); 『자유아시아방송』(2024/05/19); 『조선일보』(2024/08/02); 『오마이뉴스』(2024/04/17); 『연합뉴스』(2024/07/18); 『연합뉴스』(2024/09/29); 『한국일보』(2024/11/04); 『아시아경제』(2024/11/25); 『연합뉴스』(2024/01/12); 『Policy Economy』(2024/09/05)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3) World Bank Data (2023), <https://databank.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KD.ZG/1ff4a498/Popular-Indicators>. (2023년 11월 18일)
 4) SIPRI (2023a), "SIPRI Arms Industry Database", <https://www.sipri.org/databases/armsindustry>. (2023년 11월 18일 검색)

위협균형론은 편승보다 균형이 더 일반적이라는 세력균형론의 가정을 수용하고 있으며, 국가들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에 대항해 균형을 이루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다(Walt 1987, 21-22). 그리고 균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위협(threat)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국가들은 자국에 가해질 수 있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국가와 동맹을 맺어 위협적인 국가와 안보 균형을 이루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Walt 1987, 263). 결과적으로,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현대무기 개발 등은 주변국들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비 증강이나 동맹 강화를 추구하게 만들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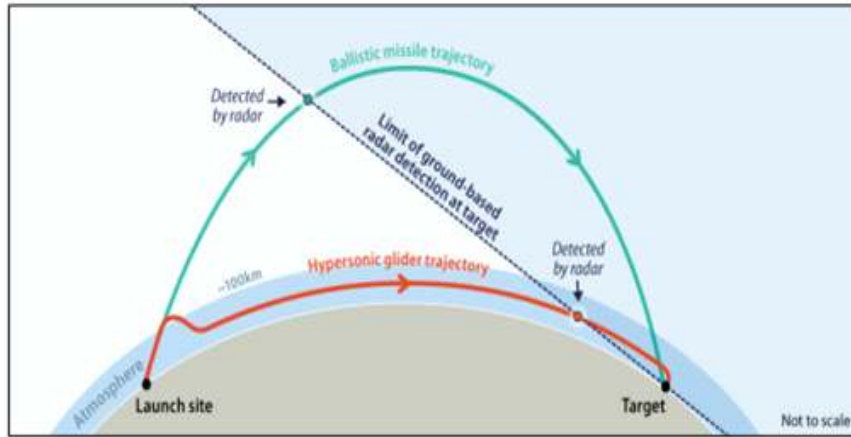
윌트(Walt)는 위협이라는 변수를 총체적 국력, 지리적 근접성, 공격적 군사력, 공격적 의도라는 네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 복합변수라고 주장하고 있다(Walt 1987, 26-27). 물론, 현재 동아시아에서 나타나고 있는 위협은 윌트가 제시한 네 가지 요인 모두에 부합하지는 않는다. 특히, 전략무기, 총체적 국력, 지리적 근접성은 현대전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은 지리적 인접성과 총체적 국력과는 무관하게, 주변국들의 무기개발에 따른 위협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독자적 또는 협력을 통한 신형 전략·전술 무기개발, 합동 군사 훈련 등을 통해 균형을 맞추려는 모습을 보인다.

2. 동아시아 지역 내 新 군비경쟁

(1) 무기 경쟁: 극초음속 미사일

2018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극초음속 무기 실전배치를 언급하면서, 극초음속 무기체계에 대한 개발 경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CNN 2018/12/29). 극초음속 미사일은 핵무기를 대체할 가능성과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할 잠재력 등으로 인해 향후 게임체인저(game changer)로서의 가능성까지 제시되고 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빠른 속도와 저고도 비행에 회피능력까지 갖추고 있으며, 다른 무기체계들과 달리 현재까지 요격 가능한 대응 체계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림 3> 극초음속 비행체 지상 기반 레이더 탐지



· Sayler(2023) 재인용

현재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평가되는 국가는 러시아, 북한, 중국이다. 러시아는 2018년 ‘아방가르드 2018’을 언급한 이후, 2019년 12월 남부전략 미사일 부대에 이를 실전 배치했다. 이후 2020년 신형 ‘지르콘’의 시험 발사에 성공하였으며, 2021년 11월에는 고르슈코프(Gorshkov) 제독함과 백해 해역에 있는 북해함대 소속 4,500톤급 호위함에 배치되었다. 또한, 러시아는 2024년 11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인 오레슈니크(Oreshnik)를 사용했다고 밝혔다(CNN 2024/11/22).

중국은 2019년 10월 건국 70주년 열병식에서 동평-17을 공개하고, 2020년 7월과 2021년 10월에 각각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 현재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역시 2021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완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같은 해인 2021년 9월과 2022년 1월 5일, 1월 11일에 걸쳐 총 세 차례 시험 발사를 완료했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초당 1.7km의 속도로 비행하며, 평양에서 발사 시 약 114.7초 만에 서울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앞선 <그림 3>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지상 기반 레이더로는 비행 후반까지 탐지가 불가능하고, 탄도 미사일의 궤적을 따르지 않으며, 목적지로 비행하는 도중 기동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이는 짧

은 대응시간과 불명확한 궤적으로 인해 표적 명중에 대한 불확실성을 초래하며, 현재 대응 무기를 보유하지 못한 주변국들에게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일본의 미사일 타격 거리 증대, 한국의 SLBM 발사 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또한 주변국(중국, 러시아)의 안보 불안증대로 이어지게 된다.

<표 4> 주요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현황(2024년 기준)

국가명	내용
러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12월 '아방가르드' 남부전략 미사일 군에 실전배치 · 2020년 10월 신형 '지르콘' 시험 발사 성공 · 2021년 11월 '지르콘' 북해함대 소속 고르슈코프 제독함 배치 · 2023년 11월 '아방가르드' 실전배치 영상 공개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10월 DF-17 공개 · 2020년 7월 극초음속 미사일 남중국해 상 발사 · 2021년 10월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중국부인) · 2022년 2월 DF-27 시험 발사
북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9월 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발사 · 2022년 1월 5일 극초음속 미사일 북한판 'MARV' 발사 · 2022년 1월 11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 2024년 4월 2일 신형중장거리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6월 B-52H 전략 폭격기에서 AGM-183A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 · 2021년 10월 21일 알래스카 발사 시험 실패 · 2022년 미사일 전체 시스템 시험 실패 · 2024년 6월 태평양 미사일 시험시설에서 비행 시험 성공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부터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추진 · 2026년 Block-I, 2033년 Block-II 실전배치계획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신규 결정 · ICBM, SLBM, ALCM 연구 진행

▪ 『세계일보』(2022/02/13); YTN(2022/02/02); YTN(2020/08/08);
 『조선일보』(2020/11/18); YTN(2021/09/29); 『헤럴드경제』(2021/10/01);
 『헤럴드경제』(2021/10/19); 『동아일보』(2021/10/20); 『아시아경제』(2021/10/22);
 『문화일보』(2021/10/26); 『경향신문』(2021/11/22); 『매일경제』(2022/01/07);
 홍민(2024); CRS(2024)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2) 군사협력 경쟁: 합동 군사협력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군비경쟁은 신형 무기개발뿐만 아니라 군사행동 및 군사 훈련 협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전략무기를 통한 위협 억지와 합동군사훈련을 통한 위협 억지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에 기반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과거 미국과 소련 간의 군비경쟁과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나는 군비경쟁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볼 수 있다.

<표 5> 중국-러시아 합동 해상 훈련 현황(2005-2024년)

년	월	장소
2005	8월	블라디보스토크항, 중국 산둥반도
2007	9월	아덴만
2012	4월	칭다오 인근 황해지역
2013	7월	포트르대제만
2014	5월	양쯔강 하구 동쪽, 동중국해 북쪽 해상 및 공역
2015	5월	지중해 해상 및 동쪽 영공
	8월	블라디보스토크 연안 포트르대제만, 동해 해상 및 공역
2016	9월	잔장(湛江, Zhanjiang), 잔장 동쪽 해상 및 공역
2017	7월	상트페테르부르크(Baltiysk, St. Petersburg), 발트해 남동부
	9월	블라디보스토크 연안 포트르대제만과 남오호츠크해 중간 지정해역
2019	4월	칭다오 인근 황해지역
	7월	동해, 동중국해지역
2020	12월	동해, 동중국해지역
2021	10월	러시아 극동 해안
2022	12월	저장성 저우산, 타이저우 동쪽 해역
2023	7월	동해 중부해역
2024	3월	아라비아해, 오만만*
2024	7월	서태평양 등지

· * 본 훈련은 중국, 러시아, 이란 3국이 함께 진행
음영처리된 부분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진행된 훈련임

· 강지연(2021); The State Council Information Offi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2019, 49); Weitz(2021, 7-9); 『세계일보』(2024/03/12); 『연합뉴스』(2024/07/12)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군사협력을 통한 지역 내 경쟁은 크게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맹국 형태의 협력으로 나뉜다. 중국과 러시아는 2005년부터 러시아와 동중국해, 블라디보스토크항, 동해 등에서 거의 매년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주변국들의 EEZ 부근에서 군사 행동도 이어가고 있다.

특히,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와 대만방공식별구역(TADIZ)에서 지속적인 군사행동을 감행하면서 주변국들과의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동아일보』 2020/12/23; 『연합뉴스』 2021/08/22).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 간 협력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과는 다르게 보다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먼저 쿼드(QUAD) 가입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말라바르 훈련(Exercise Malabar)이 있다. 말라바르 훈련은 쿼드 4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항행의 자유와 테러 위협에 대비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말라바르 훈련은 인도와 미국 간의 양자 훈련으로 시작했으며, 2015년 일본이 영구 파트너로 참여한 데 이어, 2020년 호주가 본격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주요 협력체로 참여하게 되었다. 말라바르 훈련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통적인 군사 훈련을 넘어 해적 방지, 의료 훈련 등 비전통적 군사 상황에 대비한 다양한 훈련을 포함하고 있다(*INDIA TODAY* 2016/06/14; *National Maritime Foundation* 2014/08/05).

그러나 쿼드 4개국이 모두 참여하기 시작한 ‘말라바르 2020’과 ‘말라바르 2021’ 훈련 내용을 살펴보면, 첨단 전쟁 기술, 포격 훈련, 연합 해상 작전, 대잠전훈련, 해상 차단 작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말라바르 훈련은 인도-태평양 지역,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군사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협력체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말라바르 훈련 현황(2019-2024년)⁵⁾

년도	참가국	장소	년도	참가국	장소
1992	인도, 미국	인도 서해안	2012	인도, 미국	벵골만
1995	인도, 미국	페르시아만	2013	인도, 미국	인도 동해안
1996	인도, 미국	인도 서해안	2014	인도, 미국, 일본	일본
2002	인도, 미국	아라비아해	2015	인도, 미국, 일본	벵골만
2003	인도, 미국	인도 서해안	2016	인도, 미국, 일본	필리핀해
2004	인도, 미국	인도 서해안	2017	인도, 미국, 일본	벵골만
2005	인도, 미국	인도 서해안	2018	인도, 미국, 일본	필리핀
2006	인도, 미국, 캐나다	인도 서해안	2019	인도, 미국, 일본	일본
2007	인도, 미국	필리핀해	2020	인도, 미국, 일본, 호주	벵골만, 아라비아해
2007	인도,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벵골만	2021	인도,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해, 벵골만
2008	인도, 미국	아라비아해	2022	인도, 미국, 일본, 호주	동중국해
2009	인도, 미국, 일본	일본	2023	인도, 미국, 일본, 호주	남태평양
2010	인도, 미국	인도 서해안	2024	인도, 미국, 일본, 호주	벵골만
2011	인도, 미국	인도 서해안			

· 음영 표시된 부분은 쿼드에 참여하는 4개 국가(인도, 미국, 일본, 호주)가 옵저버가 아니라 정식으로 합동훈련에 참여하게 된 시기이다.

오커스(AUKUS) 또한 말라바르 훈련과 마찬가지로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협력 체제라 할 수 있다. 오커스는 영국의 최신예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를 아시아에 파견했으며, 영국과 미국이 함께 호주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原潛)기술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5) 다음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INDIAN NAVY, <https://indiannavy.nic.in/>. (2024년 10월 18일 검색)

1958년 영국에게만 지원되었던 원잠 기술을 호주에게도 지원하게 된 사례로, 중요한 변화를 의미한다.

물론 호주에 지원되는 원잠에 실제 핵무기가 장착될 가능성은 낮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러시아와 중국 간의 핵 협력 강화를 촉발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만들었다. 실제로 2023년, 중국과 러시아는 핵심 원자력 기술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장기 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더불어, 미국, 영국, 호주는 오키스 안보협약체를 중심으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협력을 강화하는 협약을 체결했다(『아시아경제』 2024/11/19).

V. 결론

냉전기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 개발을 중심으로 한 군비경쟁 이후, 21세기에 들어 동아시아 지역에서 新군비경쟁이 다시 촉발되고 있다. 냉전기와 21세기의 군비경쟁은 공통적으로 군사적 경쟁이라는 점을 공유하지만, 두 현상은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냉전 시기 군비경쟁은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강대국 간에 발생했으며, 양국 모두 일방적 공격이 일방의 승리가 아닌 쌍방의 패배로 귀결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냉전 시기 핵무기는 핵전쟁을 억지하는 수단으로서만 사용되었으며, 핵무기의 감축과 폐기를 목표로 한 양국의 노력이 이어져 왔다.

반면, 최근 동아시아에서 나타나고 있는 군비경쟁은 냉전기와 달리 더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이는 단순히 기존의 무기 생산과 발전에 초점을 둔 ‘군비경쟁’이 아닌, 보다 복합적 형태의 ‘군사경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군사경쟁은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국가 모두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각국의 최신 전략무기 개발이 국가 간의 문제를 넘어 같은 목표를 가진 국가 간의 협력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은 방위비 분담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에 따라 역대 최고 인상률인 13.9%가 적용되었고, 12차 한미 방위비

분담특별협정에서도 2026년부터 5년간 2025년 대비 방위비를 8.3% 인상하는 것에 합의했다(『연합뉴스』 2024/07/18). 일본 역시 2021년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분담에 관한 특별협정을 통해 2022년부터 5년간 2021년 대비 약 4.61%의 방위비 인상에 합의했으며, 이를 통해 공동훈련 비용을 신설하기도 했다(『이데일리』 2021/12/11). 이러한 현상은 더이상 군비경쟁이 과거 냉전 시대처럼 강대국들만의 몫이 아니라 지역 내 국가들의 책임 증가와 협력 강화, 동맹국의 자위 능력 확대라는 새로운 형태로 분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아시아 지역의 군비경쟁은 러시아, 중국,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과 같은 국가별 경쟁,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를 위한 미국과 일본의 SM-3블록 2A 개발을 통한 동맹 협력, 말라바르 훈련과 오커스와 같은 다자협력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20세기 군비경쟁의 이론적 내용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양차 세계대전의 경험은 군비경쟁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으며(Sample 2021, 63-80), 동시에 소련과 미국 간 군비경쟁이 실제 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도 보여주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군비경쟁이 명확히 전쟁의 발생 원인이 되는지에 대한 이론적 증명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

윌트(Walt)가 위협균형론에서 설명한 것처럼, 동아시아 지역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들에 대항하여 균형을 이루기 위해 각국이 최신 전략무기 개발을 서두르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군사협력 및 동맹국들의 자위(self defence) 능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군사 협력과 무기개발은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SLBM과 L-SAM(한국형 아이언돔)의 시험 발사 성공은 긍정적 성과로 평가되지만, 원잠 보유문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성공 여부, 한미 군사협력을 제외한 정기적인 군사 훈련 등의 부재는 여전히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무기개발 중심의 군비경쟁이 군사협력 중심의 ‘군사경쟁’으로 변화하는 새로운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동아시아 지역에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전 지구적 차원의 변화인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동아시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최신헌 무기 개발과 확장되는 군사협력은 지역 내 불안정성을 초래하면서도 평화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1. 논문 및 단행본

- 고봉준 (2007). “공세적 방어: 냉전기 미국 미사일방어체제와 핵전략.” 『한국정치연구』. 16권. 2호, pp. 191-227.
- 김보미 (2019). 『김일성과 중소분쟁: 북한 자주외교의 기원과 형성(1953-1966)』. 서강대학교출판부.
- 문수연 (2000). “러시아의 새로운 억지정책과 핵전략.” 『슬라브학보』. 15권. 1호, pp. 279-301.
- 송세관 (2021). “한국의 바람직한 국방개혁 방향 연구: 동북아 군비경쟁을 중심으로.” 『인문사회21』. 제12권. 5호, pp. 889-899.
- 신성호 (2017). “미중 핵 군사 전략 경쟁.” 『EAI 워킹 페이퍼』. pp. 1-30.
- 임재형·이성우 (2019). “동북아시아 군비경쟁과 한반도 평화: 미·중·일 관계를 중심으로.” 『The Journal of Peace Studies』. Vol. 20. No. 1, pp. 73-101.
- 정규수 (2012). 『ICBM, 악마의 유혹: 미국과 소련의 ICBM 치킨게임』. 지성사.
- 홍민 (2024). “북한의 신형중장거리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 분석.” 『Online Series』. 통일연구원, pp. 1-10.
- Cardenas, Nicky C. (2020). “Military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the South China Sea: A Critical Analysis.” *MCUP*. Vol. 2020, pp. 1-18.
- Gaddis, John Lewis Gaddis (2005). *The Cold War: A New History*. New York: Nal Books.
- Harkabi, Y (1966). *Nuclear War and Nuclear Peace*. New York: Donald Davey & Co.
- Liff, Adam P. and G. John Ikenberry (2014). “Racing toward Tragedy?: China’s Rise, Military Competition in the Asia Pacific and the Security Dilemma.” *International Security*. Vol. 39. No. 2. Fall, pp. 52-91.
- Mastro, Oriana Skylar (2021). “Military Competition With China: Harder Than the Cold War?” Allison Astorino-Courtois (et al.). *US versus China: Promoting ‘Constructive Competition’ to Avoid ‘Destructive Competition’*. Arlington, VA: NSI, Inc. pp. 73-82.
- Sample, Susan G. (2021). “Arms Races.” *Sara McLaughlin Mitchell and John A. Vasquez, What Do We Know about War?* Third Edition. London: Rowman & Littlefield.

- The State Council Information Offi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9). *China's National Defense in the New Era*. Beijing: Foreign Languages Press Co. Ltd.
- Walt, Stephen M. (1987). *The Origins of Alliances*.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 Xi, Luo (2021). "Competition between great powers and a looming strategic arms race in the Asia-Pacific." *China International Strategy Review* No. 3, pp. 123-136.

2. 기타

- 강지연 (2021). "인도-태평양 지역 내 쿼드(Quad)를 통한 협력과 전망: 해상 실크로드와 쿼드간 견제와 균형." IFES.
- 장철운·김상범·김차준·이기동 (2021). 『한반도 군비경쟁과 평화정착』. 통일연구원.
- 최우선 (2019). "미국의 INF 조약 탈퇴와 미·중 군사경쟁." IFANS.
- CRS (2024). "The U.S. Army's Long-Range Hypersonic Weapon(LRHW): Dark Eagl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Saylar, Kelley M. (2023). "Hypersonic Missile Defense: Issues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Tian, Nan., Diego Lopes da Silva, Xiao liang and Lorenzo Scarazzato (2024). "TRENDS IN WORLD MILITARY EXPENDITURE, 2023." SIPRI.
- Weitz, Richard (2021). "Assessing Chinese-Russian Military Exercise: Past Progress and Future Trends." CSIS.
- 강계만·김성훈·한예경. "한국은 또 외면당했다... 극초음속미사일 개발 손잡은 미국 일본." 『매일경제』. 2022년 1월 7일.
- 김남석. "美해군, 소형·무인화 전환... 中 물량공세에 첨단戰 대응." 『문화일보』. 2021년 10월 26일.
- 김문경. "미사일 속도전 나선 동북아... 새로운 게임체인저?" *YTN*. 2020년 8월 8일.
- 김영욱. "[동아시아포럼] 일본-필리핀 군사 협력, 긴장 완화에 득이 될까 독이 될까?" 『Policy Economy』. 2024년 9월 15일.
- 김유진. "'중, 지난 7월 남중국해 상공으로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미, 중국 기술 진전에 당황." 『경향신문』. 2021년 11월 22일.
- 김진국. "[한반도 신무기 대백과] '미티어' 미사일 장착 KF-21, 한반도엔 적수가 없다." 『자유아시아방송』. 2024년 5월 19일.

- 김태중. “역대급 미일 동맹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오마이뉴스』. 2024년 4월 17일.
- 박상현. “日, H2A 로켓 48호기 발사 성공… 北군사시설 감시 정찰위성 탑재.” 『연합뉴스』. 2024년 1월 12일.
- 박수찬·구윤모. “ICBM 사활 걸던 北, 요격 힘든 多種 미사일로 對南 위협 [디펜스 포커스].” 『세계일보』. 2022년 2월 13일.
- 서소징. “[전문] 한-말레이시아, ‘전략적 동반자관계’ 공동성명.” 『아시아경제』. 2024년 11월 25일.
- 신규진. “中-러 군용기 19대 KADIZ 무더기 진입.” 『동아일보』. 2020년 12월 23일.
- 신대원. “北, 지대공미사일 추정 ‘반항공미사일’ 시험발사.” 『헤럴드경제』. 2021년 10월 1일.
- 양지호. “김정은, 온힘 쏟아 신무기 개발… ‘허풍 있어도 안심 못해.’” 『조선일보』. 2024년 1월 16일.
- _____. “한미軍, 북핵 대비 ‘아이언 메이스’ 연합 훈련 첫 실시.” 『조선일보』. 2024년 8월 2일.
- 오수연. “美, 영국·호주와 극초음속미사일 협력... 2028년까지 3500억 투입.” 『아시아경제』. 2024년 11월 19일.
- 유용원. “한반도 주변 4강은 극초음속 무기 경쟁, 한국은?” 『조선일보』. 2020년 11월 18일.
- _____. “[유용원의 밀리터리 시크릿] 첨단무기 개발 가속화하는 일본 방위산업의 허실.” 『조선일보』. 2024년 3월 21일.
- 유혜정. “美, 중국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에 “매우 우려”... 中, 발사 부인.” 『헤럴드경제』. 2021년 10월 19일.
- 윤고은. “중국, 신형미사일 발사시험... 대만·미국·일본 겨냥.” 『연합뉴스』. 2021년 8월 22일.
- 윤상호·신규진. “北 ‘소형 SLBM’ 포착-요격 더 어려워져... 軍안팎 “대남 타격용.”” 『동아일보』. 2021년 10월 20일.
- 이승윤. “우리 군도 극초음속미사일 개발... ‘전투기 장착용.’” 『YTN』. 2022년 2월 2일.
- 이우중. “중·러·이란, 중동서 합동 해군훈련... 군사협력 과시.” 『세계일보』. 2024년 3월 12일.
- 이현우. “美국방부, “알레스카서 실시한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 실패.” 『아시아경제』. 2021년 10월 22일.
- 전경웅. “향후 5년간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 11조원... 미일 합의.” 『이데일리』. 2021년 12월 11일.
- 정성조. “中 “광둥성 부근 중러 합동훈련”... ‘서태평양 순찰’은 거론 안해.” 『연합뉴

- 스. 2024년 7월 12일.
- _____. “중러, 동해·오후프크해 훈련 종료… 올해 2차 태평양 합동 순찰.” 『연합뉴스』. 2024년 9월 29일.
- 최인영·정성조. “러·中 합동훈련 남중국해서 종료…해상전투 등 연습.” 『연합뉴스』. 2024년 7월 18일.
- 최지원. “한미 방위비협상 타결… 2026년 분담금 8.3%↑.” 『연합뉴스』. 2024년 10월 4일.
- 하채림. “북 “4.5t 초대형 재래식 탄두 장착 신형 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연합뉴스』. 2024년 9월 19일.
- 허경주. ““비동맹’견지하던 인니, 러시아와 첫 군사훈련…중·러 밀착 가속화.” 『한국일보』. 2024년 11월 4일.
- YTN. “北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 YTN. 2021년 9월 29일.
- Khurana, Gurpreet S. “India-US MALABAR Naval Exercises: Trends and Tribulations.” *National Maritime Foundation*. August 05, 2014.
- London, Brad. “Russia’s ‘invulnerable’ nuclear missile ready to deploy, Putin says.” *CNN*. December 29, 2018.
- Nichollas, Catherine. and Eve Brennan. “Putin says Russia launched a new missile in Ukraine. Here’s what we know.” *CNN*. November 22, 2024.
- Purohit, Jugal R. “Malabar 2016: All you need to know about US, Indian and Japanese joint naval exercise that begins today.” *INDIA TODAY*. June 14, 2016.
- INDIAN NAVY. <https://indiannavy.nic.in/>. (2024년 10월 18일 검색)
- SIPRI (2023a). “SIPRI Arms Industry Database.” <https://www.sipri.org/databases/armsindustry>. (2023년 11월 18일 검색)
- _____. (2023b).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https://www.sipri.org/databases/milex>. (2023년 11월 18일 검색)
- World Bank Data (2023). <https://databank.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KD.ZG/1ff4a498/Popular-Indicators#>. (2023년 11월 18일)

| 논문투고일 : 2024년 11월 24일 |

| 논문심사일 : 2024년 11월 30일 |

| 게재확정일 : 2024년 12월 10일 |

| ABSTRACT |

**The Evolution of Arms Races
in the Post-Cold War Era:
Focusing on East Asia**

JiYoun Kang

(Intern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how the arms race has evolved since the Cold War. During the Cold War, the arms race was primarily characterized by military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with a strong emphasis on nuclear weapons development. However, in the post-Cold War era, the arms race has become more complex than its Cold War counterpart. Specifically, as the previously bipolar competition transitioned into a multipolar dynamic, the arms race, once focused on geographically significant arms development, has diversified to include various forms, such as military cooperation.

This shift reflects the changes in global power structures after the Cold War, where the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gave way to regional rivalries, such as those in East Asia. In other words, this transition marks an evolution from the bipolar competition of the Cold War to a multipolar rivalry, often driven by regional powers.

Additionally, while the arms race during the Cold War heavily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it has recently evolved into a more complex phenomenon. This transformation includes not only competition in weapons development, such as the development of hypersonic missiles, but also joint military exercises involving allied nations, such as the Malabar

Exercise.

This paper argues that this evolving form of arms race will continue to maintain unstable peace in certain regions by addressing gaps in military capabilities through collaboration among allies and partners.

- Key words: Military Competition, Arms Races, Hypersonic Missiles, Joint Military Training, East Asia